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애 3:26), 주님과 만남을 기다립니다 (시 130:6). 기다림이 오랏수룩 기쁨이 커지는 법입니다. 기다림은 소망과 절망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림을 통해 소망을 품고, 어떤 이는 기다림에 지쳐 절망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의 위기가 얼마나 더 지속하게 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의 절망과 시위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메릴랜드 주 정부와 하워드 카운티는 회복을 위한 2 단계 진입을 발표했습니다. 종교 시설은 정원의 50% 미만으로 모여 방역 기준을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베델교회 당회는 사회적 상황과 성도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한적 현장예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 제한적 현장예배 점진적 확대 계획

제한적 현장 예배는 6월 14일(주)부터 시작하되 먼저 당회원과 목회진, 협동장로님들이 사전 현장예배를 통해서 방역과 안전 기준을 점검합니다. 이어지는 두 주간 (21일과 28일) 주일은 제직과 사랑방 사역자 중 현장예배를 원하는 분들이 참석하여 예배실 출입과 동선, 방역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및 개선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현장예배는 7월 5일 주일예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전교인 설문 결과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현재 주일 예배는 방역과 안전한 출입을 위하여 2시간 간격으로 1부 오전 7:45 (한어예배), 2부 오전 9:45 (EM 영어예배), 3부 11:45 (한어예배), 4부 오후 1:45 (한어청년예배)로 드릴 계획입니다. 각 예배는 안전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시설의 15% 미만인 250명 내외로 제한합니다.

모든 주일학교는 치료약과 백신 개발 후 3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 혹은 카운티의 공립학교 개방 시점에 맞추어 추후에 현장 예배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19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속하는 70 세 이상의 어르신과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환우, 주일학교 자녀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길 권해 드립니다.¹

특별히 이번 제한적 현장예배를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6월 29일(월)부터 한 주간 “예배와 신앙 회복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를 “기다림의 은혜”라는 주제로 매일 오전 6시에 현장예배와 온라인 영상예배로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에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와 교회, 가정과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한적 현장예배 참여방법

제한적 현장예배 참여를 위해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참석을 위한 문진표를 작성하고, ‘온라인 확인증’을 종이에 인쇄하거나 전화기에 다운로드 합니다. 예배 참여 시 안내위원에게 확인하시고, 문진표를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준비된 서식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단, 새벽기도회와 수요일예배는 현장에서 문진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서는 개인 마스크를 준비해서 예배실 출입 시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예배실 출입을 위해서는 앞뒤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체온 측정과 손 세정 후에 안내위원의 인도를 받아 “예배석”이라고 표시된 자리에만 앉습니다. 예배실 모든 문은 열려 있으며 출입 시 손잡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가능한 온라인으로 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이 어려운 분은 본당 현관 앞에 준비된 헌금함에 직접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예배 중 헌금 바구니를 사용한 별도의 헌금순서는 없습니다. 찬송과 기도 시에는 큰 소리를 자제해 주시고 허밍이나 작은 소리로 참여하여 마스크 내 습기가 많이 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¹ 만약 70 세 이상의 어르신과 기저질환을 가진 환우께서 제한적 현장 예배 참여를 원하실 경우에는 주일 1부 예배(오전 7:45)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자녀와 함께 예배 참여를 원하실 경우에는 1부 영어권 예배(오전 9:45)나 4부 예배(오후 1:45)에 참여해 반드시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앉으신 자리나 접촉한 나무 의자는 준비된 소독 티슈(disinfecting wipes)로 닦아 주셔서 예배실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과 예배전후 화장실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 예배 후에 별도의 교제나 인사 없이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지정된 출구를 통해서 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귀가하신 후에는 따뜻한 물로 세면과 양치 등 개인 방역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배 참석 후 다른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2 주 이내에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교구/사랑방 사역자 혹은 담당 목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다림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오래 기다려 온 현장예배지만 적지 않은 불편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상황이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엄격한 방역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히 모든 상황이 호전되어 온전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전 1:7).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사 55:8-9). 하나님은 기다리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 7:7, 11). 교회와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시대가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이르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지만, 기도한 사람만이 그 일을 깨닫고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며...
담임목사 백신중 드림